

180석 ‘슈퍼 여당’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30년만에 여당 절대 다수 의석…대선까지 국정 주도권 확보
국회의장·주요 상임위 차지…입법·예산·임명안 단독 처리 가능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으로 태어남에 따라 국정과 입법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인위적 정계 개편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로 중앙·지방정부에 이어 입법 권력도 확보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갖추게 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턱걸이하는 참패를 당하

면서 여의도에서의 위상과 위세가 크게 약화됐다. 당장 패배의 쓰나미로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어렵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처리했으나 이제는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입법·예산뿐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즉, 경찰 개혁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

라는 관측이다.

개헌 추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적 3분의 2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의 단독 발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소야당에 더해 통합당에서 일부만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5월로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들어갔다. 선거 압승을 기세로 2차 추경을 이달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국난 속에서 상승세를 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진문(진 문재인) 진영의 발언권이 더 세질 전망이다. 당의 투 톱을 뽑는 5월 원내대표 선거와 8월 정당대회도 친문 경쟁 구도로 재편되면서 친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열린민주당 ‘먹구름’

3석 당선 초라한 성적표…독자 정당 유지 불투명

친문(친문재인)·친조국(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표방하면서 4·15 총선에서 선전을 기대했던 열린민주당의 앞날이 16일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 친문 인사들이 대거 합류, ‘문 대통령의 입과 칼’을 표방하면서 애초 비례대표 후보 17명 전원의 당선을 기대했으나 최 전 비서관을 포함해 ‘3석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독자적으로 당 차원의 원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비교급 군소 정당으로 잊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 흡수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벌어진 경쟁 과정에서 육설까지 섞인 비난을 하기도 한 민주당과의 불편한 관계가 문제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공언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앞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선자들과 당내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민주당과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필요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 국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변화 부족 인정”

선대위원장 회견…“정부 도우라는 국민 뜻 따를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와 관련,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 자체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총선 결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져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옹지 않

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부족하고 미흡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재건을 맡을 수 있는냐는 질문에 “내가 여기 올 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던”고 답했다. 이어 “당의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민주,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책임감 막중…국민 목소리 더 귀 기울이겠다”

총선 관련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가에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했고, 자기책임자까지 포함해 기적같은 투표를 기록해줬다”며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

러분, 자랑스롭습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로 입장문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내심 감격해하면서 도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이해찬 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지금 민주당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며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압승에 대해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모아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빠른 국난 극복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국민 선택 겸허히 수용”

국민의당 대표 입장문…“삶의 현장으로 다가갈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극복해 실용적 중도정치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더 나은 자세로 국민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겠다”며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 정치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당은 더욱 노력하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비례대표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미래한국당(33.8%), 더불어민주당(33.4%), 정의당(9.7%)에는 크게 뒤지고 열린민주당(5.4%)을 소폭 앞서는 수치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00~4,800 원의 원리금 지원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대출(부채 상환 지원)
- 저임금·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가례동 고금리상업 위자지역 분회 무이자 대출
- 3~9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인위장애·무주택 가구에 300~600 원의 원리금 지원
-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정'·'건강'·'문화'·'복지'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	--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